

푸펜도르프가 구상하는 자연 종교에서 신, 인간의 신에 대한 의무, 종교와 도덕 - 『인간의 의무』에 관한 해석적 연구 -

조관성*

주제분류 철학사, 윤리학사, 도덕 철학, 종교 철학.

주요어 자연법, 신, 자연 종교와 계시 종교, 이신론에 정향한 유신론, 신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 종교와 도덕.

요약문

글쓴이는 아래 논문에서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이론이 품고 있는 세 가지 갈래 곧 자연법에 기초한 윤리학과 자연법에 의존하는 사회 과학들 그리고 자연법에 따르는 종교 철학이나 도덕 철학 가운데 셋째 갈래의 영역 안에서 연구를 수행하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목적을 추구한다. 첫째로 아래 논문은, 푸펜도르프가 자연 종교 그리고 신에 대한 인간의 의무라는 주요 주제 아래 종교 철학과 도덕 철학의 시각에서 사유하고 이해하는 내용을 충분히 해명해내고자 한다. 이 첫째 목적을 위하여 아래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하위 주제들을 다룬다: 신의 존재와 신의 본질적 특징, 이성과 신앙, 지식과 계시, 내면성의 철학 모형을 따르는 안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 이것으로부터 뚜렷이 구별되는 것으로 실재주의 철학 모형을 따르는 밖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 종교 언어의 유비적 사용, 이신론에 정향한 유신론, 도덕적 신 존재 증명, 도덕을 위한 종교와 신. 둘째로 글쓴이는 종교 철학과 도덕 철학의 역사에 주의하여 이 철학사 안에서 푸펜도르프가 차지하는 영향사적 위치와 의미를 발굴해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하여 글쓴이는 푸펜도르프를 집중적으로 다루면서도 푸펜도르프를 아리스토텔레스, 아우구스티누스, 안셀무스, 아퀴나스,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칸트 등과 같은 철학자들과 비교해 봄으로써 푸펜도르

* 경인교육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철학탐구 제45집

프의 자연 종교 개념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이 논문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철학자의 시각과 견해를 동일시하거나 구별할 수 있는 영향사적 전역사와 후역사의 흔적들을 밝혀내고자 시도한다.

1. 머리말

푸젠도르프는 자연법 사상 또는 자연법 이론의 주제 영역 안에서 다루어지는 법학자로 그리고 넓은 의미의 도덕 철학자로 여겨진다. 그가 의미하는 자연법은, 일차적으로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과 성향에서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신의 본질과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또는 우러나올 수 있는 (도덕 법칙이나 도덕 명령 형식의) 삶의 규칙들과 행위 규칙들의 총체를 또는 이러한 도덕 규범들이 담고 있는 도덕적 의무들의 총체를 가리킨다. 우리는 푸젠도르프의 자연법 이론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갈래의 연구 영역을 구분해낼 수 있다. 첫째 갈래는 자연법에 기초한 도덕 철학이나 윤리학을 곧 자연법 윤리학을 지칭한다. 푸젠도르프의 자연법 윤리학 일반을 또는 그의 자연법 윤리학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도덕적 의무 이론을 철학이나 윤리학의 문맥 안에서 핵심 주제로 다루는 중요 연구 논저는¹⁾ 국내외에서 확인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매우 희소하다.²⁾ 둘째 갈래는 자연법 이론에 기초한 법철학이나 실정법 이론이나 국제법 이론을 그리고 자연법 이론을 따르는 기타 사회 과학들의 영역을 가리킨다.³⁾ 이 둘

- 1) 다음 논문을 참조하십시오. 조 관성, 「푸젠도르프의 자연법 윤리학에서 도덕적 의무 이론 - 『인간의 의무』에 관한 해석적 연구-」, 『철학 사상 문화』 제23호, 동국대 동서사상연구소, 2017.
- 2) 우리는 윤리학사를 다루는 다음 세 가지 교재에서 푸젠도르프의 자연법 윤리학의 형식적 윤곽에 관한 안내를 얻을 수 있다. Schneewind, J. B., *The Invention of Autonomy -A History of Modern Mor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Kainz, Howard P., *Natural Law -An Introduction and Re-Examination-*, Illinois 2004; Irwin, Terence, *The Development of Ethics -A Historical and Critical Stud-, Vol.2*, Oxford 2008. 자연법 윤리학 일반과 자연법 윤리학의 기초를 다루는 입문서로서 다음 세 가지 전거를 참조하십시오. Joseph Rickaby, S.J., *Moral Philosophy -Ethics, Deontology and Natural Law-*, London 1923; Fagothey, Austin, *Right and Reason*, Saint Louis 1967; Henry B. Veatch, *For An Ontology of Moral -A Critique of Contemporary Ethical Theory-*, Evanston 1971.

셋째 갈래의 영역을 탐구하며 푸펜도르프에 관계하는 국외의 연구 논저들의 경우는 그 수가 많으며 국내의 연구 논저들의 경우는 그 수가 많지 않다. 셋째 갈래는 자연법 이론에 따르는 종교 철학이나 자연 종교나 자연 신학 또는 이성 신학(rational theology)을⁴⁾ 그리고 도덕 철학이나 도덕 신학의 영역을 담고 있다. 이러한 셋째 갈래의 영역에⁵⁾ 속하며 푸펜도르프에 관계하는 주요 논저는 국내외에서 찾아보기 힘들다.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이론의 셋째 갈래에 속하는 주제 영역을 『인간의 의무』 1권 4장에 대한 내재적 해석의 방법으로 논구하는 현재 논문에서 글쓴이는, 다음 두 가지 연구 목적을 추구한다. 첫째로 아래 논문은, 일차적으로는 푸펜도르프가 구상하는 자연 종교의 문맥 안에서 그리고 이차적으로는 그가 자연 종교의 바탕 위에 소극적으로 용인하는 계시 종교의 문맥 안에서 움직이면서 이성과 신앙의 관심 대상 또는 인식과 숭배의 관심 대상인 신의 존재와 본질에 대한 인간의 이성적인 인식적 관계와 신앙적인 실천적 관계에 착안하여 인간이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신에 대하여 가지는 도덕적 의무들을 밝혀내며 동시에 종교와 도덕의 관계를 주제화 하고자 한다. 둘째로 글쓴이는, 신에 대한 이성과 인식의 태도에 기초하며 이론적 인식을 지향하는 자연 종교와 신에 대한 신앙과 숭

-
- 3) 법철학과 사회 과학에 정향한 자연법 이론을 소개하는 전거로 다음을 참조하시오. Rommen, Heinrich A., *The Natural Law -A Study in Legal and Social History and Philosophy-*, Indianapolis 1998; John Finnis,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Oxford 2002. 첫째 갈래와 둘째 갈래의 접점을 다루는 일반적 전거로 다음을 참조하시오. Henry B. Veatch, *Human Rights -Fact or Fancy?-,* London 1985.
 - 4) 자연 종교와 동일한 문맥 안에 속하는 이성 신학은, 푸펜도르프가 활동하던 시대인 17세기에 특히 영국에서 크게 유행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시오. John Tulloch, *Rational Theology and Christian Philosophy Vol. 1-2*, London 1874 (Reprint, Darmstadt 1966).
 - 5) 이 셋째 갈래의 영역을 이 영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둘째 갈래와 곧 자연법 윤리학과 함께 다루는 전거로 다음을 참조하시오. Eberhard Schockenhoff, *Natural Law and Human Dignity*, Mainz 1996.

배의 태도에 기초하며 실천적 종교 활동에 정향하는 계시 종교의 연속과 연결을 안중에 두고 있는 푸펜도르프가 특히 신의 존재를 증명하여 확보하는 문제와 도덕을 위하여 종교를 도입하는 문제 등에 관한 한 철학사나 윤리학사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의미를 찾아내고자 시도한다.

2. 본론

푸펜도르프는 『인간의 의무』 1권 4장에서⁶⁾ 그의 자연법 이론에 주시하여 인간이 신에 대하여 가지는 도덕적 의무에 관하여 다룬다.⁷⁾ 푸펜도르프는 『인간의 의무』 1권 4장 1절에서⁸⁾ 인간의 신에 대한 도덕적 의무라는 주제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적 이성에서 곧 타고난 이성에서 기초해서 주제화하여 설명한다. 푸펜도르프에 따르면 한편으로 인간은 신이 내리는 계시에 의존함이 없이 자연적 이성에서 따라서 신에 관한 곧 신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참다운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신에 관한 바른 인식을 가져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자기의 타고난 이성에서 따라서 자기가 수행하는 실천적 삶과 행위를 신의 의지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타고난 이성과 신의 의지에 따라서 삶과 행위를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은 신에게 마땅히 해야 할 바를 곧 신을 숭배하고 신에 복종해야 한다. 술어적 경험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이론적 인식의 문맥 안에서 그리고 선술어적 경험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실천적

6) 『인간의 의무 A』, 39-45쪽; 『인간의 의무 B』, 60-68쪽.

7) 우리는 푸펜도르프에서 인간의 신에 대한 의무 이외에 인간의 자기에 대한 의무와 인간의 타자에 대한 의무를 곧 세 가지 방향으로 향하는 도덕적 의무 이론을 읽어 낼 수 있다. 인간의 자기에 대한 의무와 인간의 타자에 대한 의무를 자연법 윤리학의 범위에서 주제 삼는 다음 논문을 참조하십시오. 조관성,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윤리학에서 도덕적 의무 이론 -『인간의 의무』에 관한 해석적 연구-」, 『철학 사상 문화』 제23호, 동국대 동서사상연구소, 2017.

8) 『인간의 의무 A』, 39쪽; 『인간의 의무 B』, 60쪽.

활동의 문맥 안에서 상호 연결된 채 연속하여 성립할 수 있는바 지식의 대상과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신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는, 인간의 타고난 이성 곧 자연적 이성에 기초하는 자연 종교를 전제하고 있다. 푸펜도르프가 의미하는 자연 종교는, 신이 자기를 인간에게 나타내는 계시 행위에 기초하는 계시 종교와 구별되는 것으로서, 신과 인간 사이에 성립하는 두 가지 갈래의 관계를 곧 인간이 오로지 자기의 타고난 이성을 통하여 획득하고 확인할 수 있는바 한편으로는 인간과 신 사이의 확고한 인식적 관계를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과 신 사이의 실천적 관계를 담고 있다. 전자의 관계는 인간이 신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적 관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후자의 관계는 인간이 신에 대하여 가지는 실천적 관심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근거에서 그리고 인간의 이론적 관심과 실천적 관심의 주제 대상인 신에 주시하여 푸펜도르프는 자연 종교가 두 가지 갈래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하나는 이론적 또는 인식적 부분으로서 신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인간의 이성적 인식과 지식에 관계하며, 다른 하나는 실천적 또는 활동적 부분으로서 실천으로서의 종교 곧 인간의 종교 실천이나 종교 활동에 관계한다. 글쓴이가 볼 때 푸펜도르프가 이해하는 자연 종교의 첫째 갈래는 이성적 종교 철학이나 자연 신학이나 이성 신학의 작업을 함의하며, 둘째 갈래는 신에 정향한 도덕 철학이나 도덕 신학의 작업을 함의한다.

2.1. 인간의 인식적 관심 대상인 신의 존재를 주제화하는

자연 종교의 이론적 부분

『인간의 의무』 1권 4장 2절과 3절 그리고 4절과 5절에서 푸펜도르프는 신의 존재와 본질에 관계하는바 자연 종교의 이론적 부분 안에서 움직이면서 신의 존재와 신의 본질적 속성에 관한 이성적 인식을 주제 삼으며 최고 최대 최선의 속성을 소유하는 신의 존재를 확립하는 일에 곧

무신론을 배격하고 유신론을 확보하는 일에 몰두한다. 이때 푸엔도르프는 자기 이전의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생각해 내고 정식화 한 다수의 다양한 신 존재 증명들⁹⁾ 암시적으로 또는 함축적으로 언급하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곧 이신론에 정향한 유신론을 정당화한다. 이신론을 따르는 유신론을 확보하기 위한 이러한 정당화 작업에서 푸엔도르프는 다수의 다양한 전통적 신 존재 증명들을 전체적으로 비판하거나 해체하지 않으나, 커다란 윤곽 안에서 평가할 때 내면성의 철학 모형을 따르는 안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 보다 실재주의 철학 모형을 따르는 밖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을 옹호하는 길을 간다.¹⁰⁾

푸엔도르프는 『인간의 의무』 1권 4장 2절에서¹¹⁾ 모든 인간이 신에 관

9)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이러한 다기다양한 길들에 관하여 다음 세 가지 전거를 참조하시오. Wilhelm Weischedel, *Der Gott der Philosophen-Grundlegung einer philosophischen Theologie im Zeitalter des Nihilismus-*, Darmstadt 1983; Walter Brugger, *Summe einer philosophischen Gotteslehre*, München 1979; John Hick, *The Existence of God*, London 1973.

10) 글쓴이는 철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식화한 다수의 다양한 논증들을 크게 두 가지 범주로 곧 안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과 밖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으로 분류한다. 전자의 증명은 인간의 내적 의식의 삶에 대한 자기 성찰에서 또는 내적 의식의 삶에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신의 관념에서 출발하여 신이 현존함을 논증한다. 우리는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안셀무스의 『프로소르기온』, 데카르트의 『제일 철학에 관한 성찰들』,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에서 내면성의 철학 모형을 따르는 안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의 길을 찾을 수 있다. 후자의 증명은 지성과 함께하는 감각 지각을 통하여 직접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바 운동하고 변화하는 구체적 현실 세계와 경험적 사건과 경험적 사실에서 출발하여 신의 존재와 신의 본질에 관한 인식을 획득할 수 있음을 이성적 논증을 사용하여 밝혀낸다. 아퀴나스가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을 수용하여 실재주의 철학 모형 안에서 정식화 한 다섯 가지 신 존재 증명들에서 그리고 안셀무스의 『모노로기온』에서 밖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의 길을 뚜렷하게 만날 수 있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과 『대이교도대전』에 담긴 다섯 가지 유형의 밖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의 길에 관하여 특히 다음 전거를 참조하시오. Walter Brugger, *Summe einer philosophischen Gotteslehre*, München 1979.

11) 『인간의 의무 A』, 39쪽, 『인간의 의무 B』, 60-61쪽.

하여 가져야 할 인식 내용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의 수준에서 굳게 믿는 것임을 또는 신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지식을 소유하는 것임을 분명히 한다. 곧 이 세계의 발생적 근거로서의 최상 존재 또는 최초 존재인 신의 존재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푸펜도르프에 따르면 이런 의미의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의 많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에 의해서 증명되었다. 일부의 철학자들은 인간의 타고난 이성에 의존하여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원인들의 최초의 최상 원인을 찾는 방식으로 또는 이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기계에 비유하면서 이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는 최초의 운동 원인을 찾는 방식으로 또는 현실 세계가 드러내는 질서와 조화라는 경험적 사실들에 대한 관찰과 숙고를 통하여 곧 실재주의 철학 모형을 따르는 밖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의 방식으로 신의 존재를 확보하였다.¹²⁾ 신 존재 증명을 위한 이러한 논증들을 이해하고 인식할 수 없다고 일부의 사람들이 주장할 때, 푸펜도르프는 회의론이나 무신론으로 기우는 이러한 주장이 무신론을 정당화하는 구실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한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한다는 확고한 인식과 믿음은 전 인류가 역사 속에서 꾸준히 소유해 온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누군가가 신의 존재에 대한 이러한 확고한 인식과 믿음을 뒤집거나 반박하고자 할 경우, 이것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모든 논증을 논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러한 결과에 직면하여 무신론자는 자기의 무신론을 증명하기 위한 더한층 설득력 있는 이유와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사람들이 마음속에 품어오고 있는 인류의 구원이라는 소원은 신이 존재한다는 확고한 인식과 믿음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무신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신에 대한 확고한 인식과 믿음을 그리고 신에 대한 건전한 숭배를 주장하는 것보다 곧 유신론보다

12) 글썬이는 푸펜도르프가 이 대목에서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가 공유하는 실재주의 철학 모형을 따르는 밖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을 안중에 두고 있다고 본다.

오히려 무신론이 인류에게 더 한층 바람직한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증명 작업은 수행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는 확고한 인식과 믿음을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제거해내거나 분쇄해내고자 시도하는 사악한 무신론자들의 무신앙과 무종교 그리고 불경을 혐오해야 하며 또한 이들을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

『인간의 의무』 1권 4장 3절에서¹³⁾ 푸펜도르프는 인간이 신에 대하여 가져야 할 둘째 인식 내용에 관하여 곧 신이 이 세상의 창조자임을 인식해야 함에 관하여 말한다. 우리의 타고난 이성¹³⁾에 비추어볼 때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스스로 존재한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세상과 이 세계 속의 모든 존재자들은 반드시 최초 원인 또는 최고 원인을 가져야 하며 우리는 그 최초 원인이나 최고 원인을 신이라 부른다. 푸펜도르프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에서 유래하는 이러한 밖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의 길에 따라서 다음과 같은 신에 관한 일상적 견해를 거부하고자 한다. 곧 많은 사람들은 신과 관련지어 자연 세계에 관하여 통속적으로 말하면서, 모든 존재자들의 근원적 최초 원인으로 그리고 이 존재자들의 운동의 결과들을 자아내는 근원적 작용 원인으로 신 대신에 자연 세계를 내세우는데, 이것은 오류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제일 원인을 그리고 이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의 최초 원인을 자연 세계라 보는 경우가 있는 데, 이것은 오류라고 푸펜도르프는 주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사람들이 자연 세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인과 관계 속의 결과나 어떤 작용의 힘을 의미한다면 곧 이 세상과 만물 속에서 우리가 감각 경험하고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어떤 작용의 힘이나 인과적 결과를 자연 세계라고 부른다면, 이것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계 속의 모든 것들을 창조한 주체로서의 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연 세계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인식은 신의 존재를 확

13) 『인간의 의무 A』, 39-40쪽; 『인간의 의무 B』, 61-62쪽.

보호하고자 하는 논증을 지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대조적으로 자연 세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사람들이 이 세계의 그리고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최상 원인을 의미할 때, 이것은 우리에게 자명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우리가 자명한 것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신의 존재를 거부하는 것이며 신에 대한 일종의 모독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일부의 사람들은 우리가 감각 경험을 통하여 포착할 수 있는 모든 대상들 중에 예를 들에 하늘의 별들 중에 신이 내재적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믿는데, 푸펜도르프는 이러한 내재주의 시각을 오류로 규정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각 경험을 통하여 직접 만날 수 있는 사물들을 보고 숙고할 때, 우리는 그 사물들의 존재가 스스로 성립하지 않고 그것들 이외의 존재로부터 유래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푸펜도르프에 따르면 또한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도 신에 대하여 온전하지 않은 인식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곧 신을 이 세계의 영혼으로 규정하는 사람들도 신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의 영혼에 관하여 말할 때, 이것은 곧 세계의 영혼은 바로 이 세계의 일부분을 지칭하기 때문이다. 이 세계의 일부분인 세계의 영혼이 어떻게 이 세계의 존재에 선행하는 것으로서 세계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을까? 곧 이 세계의 존재에 앞서 성립해야 하는 것으로서 이 세계의 발생 원인이 될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세계의 영혼에 관하여 말할 때, 이 세계의 영혼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최초의 것을 곧 이 세계의 모든 힘과 운동과 생명이 거기에 의존하여 발원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으로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최초의 것을 의미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곧 세계의 영혼이라는 표현은 우리에게 자명하게 그리고 친숙하게 알려진 신이라는 용어를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불명확한 언어 사용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볼 때 이 세상과 이 세상 속의 모든 것들이 영원성 속에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신에 의하여 창조된 것이 영원성 속에 존재한다고 곧 영

원하다고 말할 때, 이것은 창조된 것의 타고난 본성에 합치하지 않는다. 이 세상이 영원성 속에 존재한다고 또는 영원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지어낸 존재를 곧 이 세상의 존재 원인을 거부하는 것이며 따라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다.

『인간의 의무』 1권 4장 4절에서¹⁴⁾ 푸펜도르프는 신이 이 세계와 인류 전체를 다스리고 돌본다는 점을 인간들이 인식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것이 인간들이 타고난 이성¹⁵⁾에 따라서 신에 대하여 가져야 할 셋째 인식이다. 우리는 이 현실 세계에서 직접 보고 관찰할 수 있는 질서와 조화의 모습으로부터 그리고 감탄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의 사실로부터 신이 이 세계와 인류 전체를 다스리고 돌보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채고 인식할 수 있다. 신에 대한 인간의 이러한 통찰과 인식이 품고 있는 도덕적 의미와 효과는, 우리 인간들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더라도 또는 신이 인간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서 인간사를 다스리고 돌본다는 것을 부정하더라도, 이에 영향 받지 않으며 변함없는 진리로서 성립한다고 푸펜도르프는 주장한다. 왜냐하면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신이 인간사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과 사랑을 갖고서 인간사를 다스리고 돌본다는 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모든 형태의 종교를 부정하고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적으로 말하여 만일 어떤 존재가 그 자체로 매우 뛰어난 최고 존재 또는 최상 존재일지라도 그 최고 존재가 인간에 대한 사랑과 배려와 관심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또는 인간에게 선이나 악을 또는 보상이나 처벌을 내릴 능력도 없고 내릴 의지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우리 인간들이 그러한 존재를 숭배하거나 두려워하는 일은 곧 인간의 실천적 종교 활동이나 종교 행위는 인간의 삶 속에서 명분과 의미가 없는 일이 되기 때문이다.

14) 『인간의 의무 A』, 40쪽, 『인간의 의무 B』, 62쪽.

2.2. 인간의 인식적 관심 대상인 신의 본질을 주제화하는

자연 종교의 이론적 부분

『인간의 의무』 1권 4장 1절에서 시작하여 4절에 이르는 과정에서 푸펜도르프는 자연 종교에 관계하는 자기의 종교 철학적 사유를 통하여 무신론을 배격하면서 신의 존재를 이신론에 정향한 유신론의 문맥 안에서 확보하였다. 인간과 신 사이의 인식적 관계에 그리고 인간의 신에 대한 인식적 관심에 주시하여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확보한 푸펜도르프는, 이제 신의 본질에 대한 인식의 길로 곧 신의 본질적 특징 또는 신의 본질적 속성을 주제 삼는 길로 나아간다. 푸펜도르프가 철학적 사유에서 보여주는 이러한 문제 접근 방식과 문제 취급 방식은, 경험 세계의 존재에서 출발하는 철학적 사유를 통하여 신의 존재를 확보한 후에 경험 세계와 경험적 존재자들의 특징들이나 속성들에 관한 (직접 경험을 통한) 이해와 인식에서 시작하여 그리고 언어의 유비적 사용의 매개 역할에 의존하여 신의 본질적 특징에 관한 이해와 인식의 길로 나아가는 중세의 아퀴나스를 연상시킨다. 아퀴나스가 실재주의 철학 모형이 담고 있는 밖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의 길을 따라서 그리고 언어의 유비적 사용에 의존하면서 신의 존재와 신의 본질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을 고려할 때, 푸펜도르프는 뚜렷하게 이러한 아퀴나스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인간의 의무』 1권 4장 5절에서¹⁵⁾ 푸펜도르프는 신의 본질을 총괄적으로 가리키는 신의 속성으로서 신의 무한한 완전성 또는 무제한적 완전성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제한성과 불완전함을 함의하는 어떤 종류의 속성도 신의 본질에 합치할 수 없다. 신은 모든 존재자들의 원인이며 근원이기 때문에 신이 만든 어떤 피조물이 완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인간의 타고난 이성에 맞지 않는다. 더 나아가 신의 완전성은 미천

15) 『인간의 의무 A』, 40-42쪽; 『인간의 의무 B』, 62-64쪽.

한 피조물의 지적 능력을 초월하고 있기 때문에 신의 완전성을 언어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긍정의 길을 통해 기술하기보다 부정의 길을 통해 기술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의 본질적 속성에 관하여 말할 때 한정되어 있음이나 제한되어 있음을 함축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신은 제한되거나 한정된 존재가 아니며, 한정이나 제한을 담고 있는 모든 언어적 표현들은 한계와 범위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내면성의 철학 모형에 거리를 두고 있는 푸펜도르프에 따르면 우리는 인간이 신을 명석하고 판명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내적 의식의 삶의 상상력에 의존하여 또는 마음이나 영혼의 고유 능력에 의존하여 우리가 신을 분명하고 명석하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의 능력이나 영혼의 능력을 통하여 명석하고 판명하게 인식할 수 있는 주체 대상은 제한적 존재자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마음의 능력이나 영혼의 능력은 매우 제한된 능력이다. 따라서 우리 인간은 내적 의식의 삶 속에 또는 내적 영혼의 삶 속에 신에 대한 완전하고 충분한 관념이나 인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¹⁶⁾ 우리는 단지 신이 무제한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이때 우리는 신의 존재 속에 있는 그 무엇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신 능력의 결여를 곧 우리가 신의 본질로서의 신의 위대함을 현실 세계나 피조물들 또는 현실 세계 속의 경험적 사실들이나 사건들을 매개로 삼지 않고서는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이 어떤 부분들로 이루

16) 여기에서 푸펜도르프는 인간의 내적 의식의 삶에 대한 자기 성찰에서 출발하여 또는 인간의 내적 영혼의 삶 속에 본유적으로 존재하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위대한 신의 관념으로부터 출발하여 신의 존재를 증명하며 확보하고 있는 아우구스티누스나 안셀무스 그리고 데카르트가 대표하는 안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을 안중에 두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푸펜도르프는 내면성의 철학 모형에 따르는 이러한 안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의 길에 대하여 비판적이며 이를 반대한다.

어져 있다 또는 신은 하나의 온전한 전체라고 말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언어적 표현들은 제한적 존재자들이 가질 수 있는 속성들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가 신이 일정한 장소에 존재한다고 말하는 것도 옳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표현은 신의 위대함에 일정한 제한된 범위가 있다는 것을 함축하기 때문이다. 또는 우리가 신이 운동 한다 또는 정지해 있다고 말하는 것도 옳지 않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사태 모두 다 신이 공간 속에 존재함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우리는 신에게 고통이나 슬픔 그리고 열정이나 분노 그리고 참회나 연민과 같은 일상적인 감정적 함의를 지닌 언어적 표현들을 이차적 의미가 아닌 일차적 의미로 부과하여 신의 본질적 속성을 기술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속의 위대한 인물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가장 위대한 존재인 신에 대하여 이와 같은 언어적 표현들을 적용하여 사용 한다. 이러한 종교 언어의 사용 방법에 대하여 푸펜도르프는 이들의 언어 사용이 일차적 의미의 수준이 아니라 이차적 의미의 수준에서 곧 언어의 유비적 사용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임을 지적한다. 푸펜도르프의 이러한 지적은 아퀴나스가 신의 본질적 특성을 기술하는 종교 언어 사용에서 중시하는바 언어의 유비적 사용을 연상시킨다. 푸펜도르프에 따르면 우리는 경험 세계에서 직접 경험하고 관찰할 수 있는바 인간들이 외부의 경험 세계로부터 밀려들어오는 자극들에 대응하여 소유하며 표출할 수 있는 감정들에 비추어서 신이 그러한 일상적인 인간적 감정들을 소유하며 표출할 수 있다고 언어의 유비적 사용의 문맥 안에서 말하고 주장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간들이 사악하고 가증스러운 동료 인간들에게 분노하고 이들을 혐오하듯이 신이 잘못과 죄를 지은 사악한 인간들에게 분노하며 그들을 혐오한다고 언어의 유비적 사용의 문맥 안에서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푸펜도르프는 언어의 유비적 사용을 적극적으로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부정적 의미의 일상적인 인간적 감

정들이 신의 본질적 특성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지를 펼치는 푸펜도르프에 따르면, 우리는 신에게 선의 결핍 자체를 그리고 선의 결핍을 함축하는 속성을 부여하여 신의 본질적 속성을 기술할 수도 없다. 이것은 예를 들면 신에게 욕구나 희망이나 갈망이나 성적 욕망과 같은 것을 함의하는 언어적 표현들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한다. 왜냐하면 이러한 언어적 표현들은 선의 결핍을 곧 신의 불완전함을 함의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무엇을 욕구 한다 희망 한다 갈망 한다는 것은, 어떤 존재자가 무엇을 결핍하고 있기 때문에 또는 무엇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핍하고 있는 것 또는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그것들을 지향하고 갈구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신과 피조물 사이에서 성립하는 언어의 유비적 사용에 주목하여 푸펜도르프는 무엇보다도 신이 피조물보다 우월한 존재임을 부각한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지성 능력이나 의지 능력 그리고 감각 경험의 활동 등과 같은 인간의 능력들을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들을 신에게 부과하여 사용할 경우, 우리는 그러한 언어적 표현들이 인간에게 적용되어 사용될 경우보다 더 한층 우월한 방식으로 그리고 언어의 유비적 사용을 매개로 신에게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깨닫고 인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인간의 의지는 이성이 스민 욕구의 능력이다. 그리고 인간의 욕구는 인간이 품고 있는 결핍을 전제한다. 인간의 감각 능력이나 지성 능력은 초재적인 신적 존재와 외부 세계와 외적 대상들이 인간의 신체와 영혼에 작용을 미치고 인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함의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능력들은 인간이 다른 존재자들에게 의존하여 존재하며 완전하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자연 종교의 범위에서 종교 철학적 사유를 전개하는 푸펜도르프는 이 신론에 정향하는 유신론을 옹호하면서 유일신론을 강조한다. 따라서 하나 이상의 신이 존재한다고 말하거나 주장하는 것은 신의 본질로서의 신의

완전성에 합치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이 세계의 질서와 조화의 모습이, 이 경탄할만한 아름다운 세상이 가능하도록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보는 하나의 무제한적인 완전한 신의 존재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완전한 신과 대등한 능력을 가진 다수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말할 때, 그리고 다수의 신들이 하나의 완전한 신에 의존하는 않는 완전한 신들이라고 주장할 때, 신은 무제한적 능력의 주체가 아니라 제한적 능력의 소유자로 드러날 뿐이다. 그러므로 무제한적 능력을 가진 다수의 완전한 신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자가당착이다.

푸펜도르프는 완전한 존재인 신의 본질적 속성을 언어의 유비적 사용에 따라서 표현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식으로 기술하고 담화하는 것이 인간의 타고난 이성에게 가장 잘 합치함을 주장한다. 첫째로 우리는 부정의 길을 따라 언어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신의 완전함에 관하여 말할 수 있다. 예로서 신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이다, 신은 무한히 큰 존재이다, 신은 우리가 측정할 수 없는 존재이다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로 우리는 최상급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신의 완전한 속성을 표현할 수 있다. 예로서 신은 가장 완전한 존재이다, 신은 가장 위대한 존재이다, 신은 가장 지혜로운 존재이다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셋째로 신이 무제한 또는 무한정의 능력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제한적인 무한정적 형용사를 사용하여 신의 완전한 속성에 관하여 대화할 수 있다. 예로서 신은 선한 존재이다, 신은 정의로운 존재이다,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이다, 신은 무한히 자비로운 존재이다 등을 들 수 있다. 푸펜도르프는 인간들이 신에 대하여 가지는 인식적 관심의 문맥 안에서 신의 본질적 특성을 가리키는 이러한 언어적 표현들을 사용할 경우, 인간들이 신에 대하여 가지는 실천적 관심의 문맥 안에서 다음과 같은 종교 실천이나 종교 행위에 관계하는 삶의 규칙을 명심할 것을 강조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러한 종교 언어적 표현들을 신에 적용하여 사용할 때

우리는 신을 칭송하고 찬양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신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표현들을 발화해야 한다. 곧 인간들이 종교 실천의 삶 속에서 인간이 미천한 영혼의 주체라는 점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숭배와 경배를 신에게 바쳐야 하는 미천한 영혼의 주체라는 점을 의식해야 하며 표출해야 한다고 푸펜도르프는 함축적으로 주장한다. 이러한 함축적 주장에 근거하여 볼 때 푸펜도르프는 그가 구분한바 인간의 신에 대한 두 가지 갈래의 관계를 곧 인식적 관심의 관계와 실천적 관심의 관계를 그리고 이 두 가지 관계를 집약적으로 가리키는바 인간의 신에 대한 이성과 인식의 관계 그리고 신앙과 숭배의 관계를 상호 대립이나 상호 모순 관계가 아닌 상호 양립과 상호 보완 관계로 이해하고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2.3. 인간의 실천적 관심 대상인 신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를 주제화하는 자연 종교의 실천적 부분

『인간의 의무』 1권 4장 1절에서 시작하여 5절에 이르는 내용에서 푸펜도르프는 인간의 타고난 이성 에 기초하는 자연 종교의 두 가지 갈래 곧 이론의 갈래와 실천의 갈래 가운데 이론의 갈래에 관하여 다루었다. 이제 『인간의 의무』 1권 4장 6절과 7절에서 푸펜도르프는 그가 나중에 두고서 지향하는 자연 종교의 실천의 갈래에 관하여 정확히 말하여 인간과 신의 실천적 관계를 주제 삼는다. 그가 의미하는바 자연 종교의 실천의 국면은, 인간의 종교 실천이나 종교 활동이나 종교 행위에 또는 이것의 핵심을 말하여 인간의 신에 대한 숭배에 또는 인간이 신을 숭배하는 방식에 관계한다. 푸펜도르프는 신에 대한 인간의 숭배 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곧 신에 대한 내적 숭배와 신에 대한 외적 숭배로 구분한다.

『인간의 의무』 1권 4장 6절에서¹⁷⁾ 푸펜도르프는 신에 대한 인간의 내

17) 『인간의 의무 A』, 42쪽, 『인간의 의무 B』, 64-65쪽.

적 숭배를 다룬다. 신에 대한 내적 숭배라는 것은 인간이 마음속에서 신을 존중하는 것이다. 인간이 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신에게서 신의 권능과 신의 선함이 하나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 인간은 신의 권능과 신의 선함에 주의하여 신에 대하여 가능한 한 최대의 숭배와 경배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성향을 자기의 본성으로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는 경험적 사태로부터 푸펜도르프는 다음과 같은 신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 또는 도덕 명령을 이끌어 낸다. 곧 인간은 모든 유형의 선한 것들의 원천적 창조자이며 이러한 선한 것들의 시혜자인 신을 사랑해야 한다. 인간은 미래의 모든 행복의 원천으로서의 신에 대하여 희망을 걸어야 한다. 신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최선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인간은 신의 선성의 원천인 신의 의지에 동의하고 이에 복종하고 순종해야 한다. 인간은 가장 큰 권능을 소유하는 존재로서의 신을 두려워해야 한다. 신에게 거역하는 것은 인간에게 최대의 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일에서 신에게 가장 충성스러운 복종을 보여야 한다. 곧 가장 위대하고 가장 선한 존재이며 이 세상의 창조주이며 지배자인 신에게, 가장 미천한 존재로서의 인간은 최상의 복종을 바쳐야 한다.

『인간의 의무』 1권 4장 7절에서¹⁸⁾ 푸펜도르프는 신에 대한 인간의 외적 숭배에 관하여 자세하게 기술한다. 신에 대한 인간의 외적 숭배로서 나타나는 인간의 구체적 종교 실천에 주시하여 푸펜도르프는 아홉 가지의 도덕 명령을 제시한다. 첫째, 인간은 신이 인간에게 내리어 풍부하게 베푸는 다수의 다양한 선들과 축복들에 대하여 신에게 감사해야 한다. 둘째,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노력을 바쳐서 자기의 실천적 삶과 행위를 신의 의지에 맞추어서 수행해야 한다. 곧 인간은 신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셋째, 인간은 신의 무한한 위대함을 찬미하고 칭

18) 『인간의 의무 A』, 42-43쪽; 『인간의 의무 B』, 65-66쪽.

송해야 한다. 넷째, 인간은 자기가 필요로 하는 선을 획득하고 자기가 두려워하는 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신에게 간청하고 기도해야 한다. 간청과 기도는 신에 대한 인간의 신뢰와 희망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인간이 신에게 거는 희망은, 신이 선한 존재이며 권능의 존재임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이다. 다섯 번째로 인간이 약속과 서약을 해야 할 경우에는 다른 이름에 의존하지 말고 항상 신의 이름에 의탁해서 해야 한다. 물론 삶의 상황이 이것을 요구할 경우에만 그렇다. 여섯 번째로 인간이 신에 관하여 말할 때는 신에 대한 최상의 존경과 숭상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 이것은 신의 존재를 두려워함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을 두려워함은 우리를 지배하는 신이 권능의 존재임을 마음 속 깊이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필요하고 의미 없는 일들에 관한 담화에서 신의 신성한 이름을 쉽게 그리고 헛되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신의 이름을 쉽게 그리고 헛되게 부르고 사용하는 것은 신에 대한 존경의 결핍 곧 불경을 뜻한다. 우리는 중대한 상황과 사태가 요구하지 않을 경우 신을 들어 맹세하지 않아야 한다. 곧 신에 의탁하여 헛되이 맹세하지 않아야 한다. 사소한 일에 신을 증인으로 불러들이는 것은 신의 신성한 이름을 크게 오용하는 것이다. 우리는 신의 본질적 속성이나 신의 섭리나 신의 지배 행위에 관계하는 무모한 논쟁에 또는 지적 호기심이 가득 찬 논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논쟁은, 인간의 능력을 헛되이 부풀리고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인간의 미천한 이성 능력의 범위 안에서만 파악하고 인식할 수 있는 신의 본질과 신의 섭리를 완전히 인식할 수도 있다는 헛된 상상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킬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이러한 논쟁은 신을 인간의 이성이 행하는 장난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일곱 번째로 우리가 신을 위해서 그리고 신의 의지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한다면, 최선의 것을 선택하여 실행해야 하며 동시에 신에게 인간의 깊은 존경과 숭배를 가장 잘 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여덟 번째로 우리는 혼자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도 신을 숭배하고 경배해야 한다. 홀로 있을 때만 비밀스레 신을 숭배하거나 경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을 부끄러워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내가 신에게 헌신한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며 동시에 타자들에게 나의 종교 실천이나 종교 행위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아홉 번째로 인간들은 자연법에서 우러나오는 도덕 명령들을 준수하려고 모든 최대의 노력을 해야 한다. 인간이 신의 권위를 곧 신의 명령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가하고 보일 수 있는 모든 모욕들 중에 최악의 모욕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간이 신에게 또는 신의 명령으로서의 자연법에 복종하는 것은, 인간이 신에게 올려 바치는 어떠한 유형의 제물들보다 더 한층 바람직스러운 것이다.

인간의 타고난 이성에 기초하는 자연 종교를 지향하는 푸펜도르프는, 한편으로 인식적 관심 대상으로서의 신을 다루는 자연 종교의 이론적 부분에서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실천적 관심 대상으로서의 신을 다루는 자연 종교의 실천적 부분에서 수미일관하게 자연 종교와 (이신론에 정향한) 유신론의 문맥 안에서 움직인다고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푸펜도르프는 특히 자연 종교의 실천적 부분에서 변함없이 자연 종교의 문맥 안에서 움직이면서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계시 종교의 요소를 소극적으로 용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¹⁹⁾ 이러한 소극적 용인 아래 푸펜도르프는 계시 종교로서의 기독교가 종교 활동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바 영원한 구원이 오로지 자연 종교로서의 기독교와 인간의 이성에만 의탁하여서는 성취될 수 없다는 점을 그러므로 인간은 영원한 구원을 맞이하기 위하여 계시 종교로서의 기독교와 인간의 신앙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인간의 의무』 1권 4장 8절에서²⁰⁾ 부각하여 강조한다.

19) 글쓴이는 푸펜도르프가 신에 관한 철학적 사유 속에서 이성에 기초하는 자연 종교와 신앙에 기초하는 계시 종교를 대립 관계나 모순 관계가 아니라 연결 관계와 연속 관계 속에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푸펜도르프는 『인간의 의무』 1권 4장 8절에서 인간의 타고난 이성
 기초하는 자연 종교를 죽음후의 내세나 인간의 내세의 삶과 관련지어 이
 해하지 않는다. 그에 따르면 엄밀한 의미에서 이해할 때 자연 종교는 내
 세와 영원한 구원을 지향하지 않으며 오로지 현세의 구체적인 사회적 삶
 에 정향되어 있다. 따라서 인간의 타고난 이성에만 기초하는 엄밀한 의
 미의 자연 종교는, 인간이 종교 실천이나 종교 행위에서 영원한 구원을
 얻고자 하는 데 어떠한 기여의 역할도 수행할 수 없다. 신의 계시에 그
 리고 이에 응답하는 인간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계시 종교를 용인
 하거나 도입함이 없이 자연 종교의 기초를 이루는 인간의 이성에만 기대
 하거나 의존할 때, 우리는 인간의 여러 가지 능력과 본능적 욕구와 욕망
 그리고 충동 등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죄와 타락상들이 결국 인간의 잘못
 탓이라는 점을 그리고 이러한 인간의 죄와 타락상들이 신의 분노를 자아
 낼 것이라는 점을 그리고 결국에 신은 인간에게 영원한 저주로서의 영원
 한 죽음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아채거나 인식할 수 없다.
 오로지 자연 종교의 문맥 안에서 인간의 타고난 이성의 안내만을 받아
 실천적 삶과 행위를 수행할 때, 우리는 인간을 구원해줄 신적 존재의 필
 요성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신적 존재가 인간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 그리고 더 나아가 신이 인류에게 약속한
 여러 가지 시혜들에 대하여 무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인간은 신의 계
 시를 담고 있는 성서에²¹⁾ 대한 신앙을 통하여 곧 계시 종교에 의존하여

20) 『인간의 의무 A』, 43쪽; 『인간의 의무 B』, 66쪽.

21) 우리는 신의 자기 계시가 표출하는 영역을 세 가지로 곧 신의 계시에 응답하는
 나의 영혼,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 세계, 그리고 신의 말씀을 담고 있는 성서
 로 나눌 수 있다. 자연 종교에 관한 이론적 사유에서 푸펜도르프는 나의 내적
 의식의 삶이나 나의 영혼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그는 안으로부터의 길을 가지 않
 는다. 대신에 그는 외적 자연 세계에서 출발한다. 그는 밖으로부터의 길을 간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연 종교에 관한 실천적 사유에서 푸펜도르프는 신의 자기 계
 시를 담고 있는 성서를 그리고 이에 응답하는 인간 영혼의 신앙의 길을 소극적
 으로 용인한다. 종교 실천이나 종교 행위에서 성서가 포함하고 있는 신의 계시에

구세주로서의 신이 이 세상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두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

여기로부터 우리는 푸펜도르프가 이신론과 계시 종교의 관계에 대하여 또는 자연 종교의 이론적 부분과 자연 종교의 실천적 부분의 관계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는 다음 두 가지 견해를 읽어낼 수 있다. 푸펜도르프는 자기의 자연 종교 구상에서 인간과 신의 실천적 관계에 주시하여 계시 종교를 소극적으로 용인한다. 또한 그는 종교 신비주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신의 계시 내용으로서의 성서까지도 오로지 이성과 지성의 눈으로 해석하고 이해하고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나치게 엄격한 의미의 이신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평가될 수 있다. 글쓴이가 볼 때 자연 종교의 실천적 부분을 매개로 자연 종교의 이론적 부분과 계시 종교는 연결 관계와 연속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자연 종교가 계시 종교로 연속할 수 있다. 푸펜도르프가 자기의 자연 종교 구상이나 이신론에서 계시 종교를 또는 계시 종교의 두 가지 핵심 계기인 계시와 신앙을 소극적으로 용인한다 할 때, 계시 종교가 자리 잡을 수 있는 곳은 자연 종교의 이론적 부분에 있지 않고 바로 자연 종교의 실천적 부분에 있다고 글쓴이는 생각한다.

2.4. 인간의 삶의 양식과 삶의 목적으로서의 도덕에 유용한 종교와 신

『인간의 의무』 1권 4장 9절에서²²⁾ 푸펜도르프는 신과 종교가 인간의 실천적 삶과 행위 속에서 가지는 유용성과 효과에 주시하여 정확히 말하여 유용한 도덕적 효과라는 긍정적인 현실적 역할에 착안하여 자기의 주

대하여 내적 영혼 속에서 인식의 방식이 아니라 신앙의 방식으로 응답하는 안으로부터의 길을 푸펜도르프는 그가 주제 삼은 자연 종교의 실천적 부분에서 소극적으로 용인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22) 『인간의 의무 A』, 43-45쪽; 『인간의 의무 B』, 67-69쪽.

장을 펼친다. 그에 따르면 신을 함의하는 종교는 인간들의 사회적 삶을 강하게 결속할 수 있는 가장 확고한 끈으로 여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동물적인 본능적 자기 이익의 관점이나 동물적인 본능적 이기심에 따라서 움직이는 부도덕의 자연 상태에서 또는 계산적 자기 이익의 관점이나 타산적 이기심에 따라서 살아가는 준도덕의 삶의 상태에서 신적 존재에 대한 희망이나 두려움을 갖지 않고서 삶을 영위하거나 행위를 수행한다면, 인간은 자기의 물리적 힘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자기보다 물리적 힘이 약한 자들에게 자기의 본능적 이익이나 타산적 이익에 합치하는 한에서 온갖 폭력이나 해악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간은 정직이나 겸양 그리고 진리와 같은 도덕적 덕목들을 그야말로 공허한 언어적 표현으로만 여길 것이다. 동물적인 본능적 자기 이익의 관점이나 합리적인 계산적 자기 이익의 관점에 따라서 움직이며 살아가는 이러한 인간은, 인간의 투명한 실천 이성에 근거한 논증이나 논거를 통하여서는 선하고 바른 삶과 행위를 실행할 수 있는 도덕적 삶의 양식으로 들어설 수 있도록 쉽게 설득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도덕 철학적 또는 도덕 심리학적 배경 아래 푸펜도르프는 신과 종교가 인간의 사회적 삶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사회적 결속의 힘 또는 실용적인 도덕적 효과에 주의와 관심을 기울인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삶 속에서 신과 종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사회 공동체의 내적 결속은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에 머물 것이다. 이것은 신과 종교가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도덕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데 실용적 효과의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함축 한다. 푸펜도르프가 일차적으로 자연 종교의 문맥 안에서 그리고 이차적으로 계시 종교의 문맥 안에서 이해하는바 신과 종교는, 인간의 삶의 양식과 삶의 목적으로서의 도덕이라는 인간의 사회적 제도의 확보와 실행에 효과적인 유용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자세히 말하여 신과 종교는,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타자와 더불어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적 삶을 곧 푸펜도

르프가 의미하는 도덕적 삶을 수행할 경우 내세에서 영원한 구원과 보상을 누릴 수 있다는 희망과 기대의 마음을 그리고 인간이 현실 세계에서 타자와 더불어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적 삶을 곧 도덕적 삶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을 경우 내세에서 영원한 저주로서의 영원한 죽음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회피의 마음을 인간들의 마음속에 불러일으키며 심어 놓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상호 대조적인 주요한 심리적 감정이 사회적 삶 속에서 인간의 실천적 삶과 행위를 동기 짓는 도덕 심리학적 핵심 동인을 이룰 수 있다고 푸펜도르프는 확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신과 종교가 인간의 도덕적 삶과 행위를 동기 짓는 주요한 도덕 심리학적 동인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하는 푸펜도르프의 견해는, 신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과 내세의 존재에 대한 실천적 신앙을 도덕에 합치하는 삶과 행위의 주요 동기로 여기는 칸트의 도덕 철학적 사유와²³⁾ 형식의 면에서 매우 유사하다고 평가될 수 있다. 칸트에서처럼 푸펜도르프에서도 신이 인간에게 내세에 내릴 수 있는 보상(에 대한 희망)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 세계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본능적 이기심이나 타산적 이기심이 발휘하는 동인의 힘에 비교될 수 없는 확고하고도 강력한 도덕 심리학적 동기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글쓴이가 볼 때 칸트가 하듯이 푸펜도르프도 도덕의 기초 위에 종교를 세우면서 종교보다 도덕을 더 근원적인 것으로 여기며, 목적으로서의 도덕을 위한 수단적 방법으로서 신과 종교를 설정하면서 신의 존재를 확보하는 도덕적 신 존재 증명의 길을 간다.²⁴⁾ 칸트와 푸펜도르프가 도덕을 위하여 신과 종교를 방편으로 도입한다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는 공통 견해를 보임

23) 이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칸트, 『실천 이성 비판』, 140-153쪽.

24) 칸트에서 찾을 수 있는 도덕적 신 존재 증명에 관하여 다수의 원치들과 간단한 해설을 담은 다음 전거를 참조하십시오. Walter Brugger, *Summe einer philosophischen Gotteslehre*, München 1979, 274-276쪽.

에도 불구하고 두 철학자 사이에 실질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푸젠도르프는 실용적 관점과 경험 과학적 관점에 서서 인간의 경험적인 도덕적 삶의 양식의 성취에 효과적인 구체적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신과 종교를 구체적 종교 실천이나 종교 행위의 방편으로 도입한다면, 칸트는 선형적 관점과 선형 철학적 관점에 서서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이념을 곧 이념으로서의 도덕을 성취하는 데 인간의 실천 이성이 사변적으로 요청하고 전제해야 할 형이상학적인 이념적 방편으로 종교와 신을 도입한다. 달리 표현하면 칸트는 순수한 도덕 철학적 사유에서 출발하여 도덕이라는 이념 또는 인간의 도덕성이라는 이념에 바탕을 두는 이념으로서의 신과 종교를 요청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푸젠도르프는, 그가 몸담고 살고 있던 현실 세계의 구체적인 사회적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경험적 고찰과 성찰에서 출발하여 도덕이라는 구체적 삶의 양식과 삶의 제도에 또는 인간의 구체적 삶의 목적으로서의 도덕에 기여할 수 있는 신과 종교를 구체적인 경험적 목적으로서의 도덕을 성취하기 위한 유용하고도 효과적인 경험적 방편이나 수단으로서 도입한다고 볼 수 있다.

신의 보상과 신의 처벌을 함축하고 있는 종교가 도덕에 대하여 발휘할 수 있는 실용적인 도덕적 효과의 힘에 착안한 푸젠도르프는, 예를 들어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 맞이하게 될 일시적인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는 신민들이 지배자에게 다짐한 충성 서약을 확실히 지키겠다는 마음이나 그리고 지배자가 베풀어 내려준 시혜에 대하여 신민들이 가지는 감사의 마음 등이 사회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을 결속시키는 확고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달리 말하면 푸젠도르프는, 여기에 예시한 심리적 동인들이 동물적인 본능적 이기심과 합리적인 계산적 이기심에 따라서 삶과 행위를 수행하는 인간들을 도덕적 의무에 합치하는 삶과 행위를 수행하도록 동기 지으며 규제할 수 있는 충분하고도 확실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회의적 견해를 갖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의 존

재를 함의하고 있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도덕 심리학적 동인이 곧 내세에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구원과 보상에 대한 희망이나 내세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영원한 죽음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 세계에서 삶을 영위하고 행위를 수행하는 인간들의 도덕적 삶과 행위를 이끌어내는 데 강력한 동기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푸펜도르프는 확신하고 있다. 이때 푸펜도르프는 그가 몸담고 살던 시대의 구체적 삶의 세계에 착안하여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관계 또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로 제시하면서 자기의 주장과 확신을 정당화한다.

푸펜도르프는 사람들이 내세에 향유할 영원한 구원이나 영광을 그리고 혜택이나 이익을 기대하고 희망할 때 타자를 위한 자선 행위나 우정 어린 선행의 길로 쉽게 나설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통치자들이나 신민들은, 자기 행복과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구체적 현실 세계의 문맥 안에 놓여 있는 이익과 불이익에 본능적으로 또는 타산적으로 따르기보다 영원한 구원에 대한 희망과 기대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회피에 따라서 선행의 길로 나아가며 악행의 길로 나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세에 맞이하게 될 신이 베푸는 보상에 대한 희망과 신이 인간에게 내리게 될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 세계 속의 인간의 실천적 삶과 행위를 움직이고 규정짓는 강력하고도 확고한 도덕 심리학적 동인이 될 수 있음을 푸펜도르프는 확신한다. 신과 종교가 인간의 마음 속에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심어 놓을 수 있는 두 가지 주요한 심리적 동인이 곧 내세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신이 부여하는 보상에 대한 희망과 신이 부과하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인간들이 현재의 사회적 삶 속에서 본능적 이기심과 타산적 이기심을 뛰어넘어 도덕적 의무에 합치하는 방식으로 삶과 행위를 수행하도록 이끄는 도덕 심리학적 동인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푸펜도르프는 선험적 사실이 아니라 경험적 사실로서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들이 현실적으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에 빠지지 않고 신의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곧 유신론이 좁게는

사회 공동체에 그리고 넓게는 인류 공동체에 유용한 것이다. 신과 종교를 인간들 사이의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적 삶을 위하여 곧 푸펜도르프가 이해하는 도덕적 삶을 위하여 필요하고 효과적인 유용한 수단으로 보는 이러한 공리주의적 사고에 따라서 푸펜도르프는, 사회 공동체의 지도층 인사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들의 사회적 삶의 세계 속에서 노력을 경주하여 무신론과 무신앙과 무종교의 전파와 확산을 막아야 함을 힘주어 호소한다.

『인간의 의무』 1권 4장 9절에서 푸펜도르프는 일차적으로 자연 종교의 문맥 안에 속하며 동시에 이차적으로 계시 종교의 문맥 안에 속할 수 있는 신의 존재가 인간의 사회적 삶 속에서 발휘할 수 있는 실용적 동인의 힘 또는 도덕적 효과에 관하여 주제 삼는다. 푸펜도르프는 스킨라주의 철학자들이 그들의 사유의 출발점에서부터 인간과 신의 관계에 착안해서 인간의 사회적 삶에 관하여 주제 삼는 방식과 다른 길을 간다. 푸펜도르프는 반사회적인 본능적 이기심의 지배 아래 움직이는 인간이 타자와 더불어 조화롭고 평화롭게 사회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곧 사회적 삶으로 향하는) 타고난 마음의 성향을 계발해야 한다는 경험적 사실에서 출발하여 타자와 더불어 조화롭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적 삶을 곧 그가 의미하는 도덕적 삶을 지향한다. 그리고 푸펜도르프는 이러한 도덕적 삶의 지향을 성취하기 위한 효과적인 유용한 방법 또는 수단으로서 (인간과 신의 이론적 관계와 실천적 관계에 착안하여) 신과 종교를 도입한다. 푸펜도르프는 내세에 신이 인간에게 내려줄 보상에 대한 희망의 마음과 신이 인간에게 가할 수 있는 처벌에 대한 두려움의 마음을 양심이라는 용어로 총괄하여 지칭하고 있으며, 바로 이 종교적 의미의 양심이 인간들을 인간의 본성과 신의 본질에서 우러나오는 자연법에 기초한 여러 가지 도덕적 의무들을 충실히 준수하고 실행하도록 이끄는 하나의 중요한 도덕 심리학적 동인의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장한다.

3. 맺음말

우리는 종교 철학의 역사와²⁵⁾ 푸펜도르프의 자연 종교 구상에 착안하여 자연 종교에 기초하고 있는 이신론을 또는 이신론에 정향한 유신론을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주요 기본 명제들을 사용하여 특징지을 수 있다. 1.신은 이 세계를 창조한 제일 원인이다. 2.1. 신은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 속에서 작동하면서 피조물들에 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신은 피조물들과 구별되는 초재적 존재이다. 2.2.초재적 존재로서의 신은 예를 들어 시계를 제작하여 작동시킨 후 이 시계의 작동에 더 이상 개입하거나 관여하지 않으면서 시계로부터 뚜렷하게 구별된 상태에서 시계 장치의 밖에 초재하는 시계 제조자에 비유될 수 있다. 2.3.신은 이 세상에 그리고 이 세상 속의 모든 존재자들에 관계하는 예정 조화를 의도하고 계획하여 설정해 놓았다. 2.4.신은 자기의 창조 행위 이후 자기가 창조한 이 세상을 그리고 이 세상 속의 모든 존재자들을 더 이상 돌보거나 다스리지 않는다. 2.5.세상사나 세상의 사건 그리고 인간사나 인간의 삶은 자연 세계의 인과 법칙이나 인간의 자유 의지에 따라서 일어난다. 3.1.인간은 신이 내리는 계시에 의존함이 없이 또는 신의 계시에 응답하는 신앙에 의탁함이 없이 자기의 타고난 이성에 의존하여 신의 존재와 신의 본질에 관한 이해와 인식을 얻을 수 있다. 3.2.인간은 신이 인간에게 내려준 계시 내용을 일차적으로 타고난 이성 비추어서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다. 4.신은 인간의 삶에 또는 모든 인간사와 세상

25) 종교 철학의 역사 안에서 자연 종교와 관련 있는 이신론이 다양한 의미 연관 아래 이해되고 있음을 알기 위하여 다음 철학 사전 속의 표제어 이신론(deism)을 참조하시오. Paul Edwards,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2*, London 1967, 326-336쪽; Edward Craig,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2*, London 1998, 853-856쪽; Peter A. Angeles, *The Harper Collins Dictionary of Philosophy*, New York 1992, 68쪽.

사에 개입하고 관여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고 돌볼 수 있으며 인간에게 은총과 보상을 또는 저주와 처벌을 내릴 수 있다.이점에 관하여 인간은 이성에 의존하기보다 신앙에 의존하여 깨달을 수 있다. 5.1.인간이 신과의 인식적 관계와 실천적 관계 속에서 삶과 행위를 수행하면서 추구하고 지향해야 할 유일한 목적은 그리고 실행해야 할 최상의 의무는, 인간의 타고난 본성과 신의 본성에서 우리나라오는 도덕 법칙들 또는 도덕 명령들의 총체로서의 자연법을 또는 이 자연법이 담고 있는 도덕적 의무들을 따르고 준수하는 일에 있다. 5.2.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신의 의지가 또는 인간의 의지에서 나오는 도덕 법칙과 신의 의지에서 나오는 도덕 명령이 양립할 수 있음을 함축한다.

우리는 푸펜도르프가 구상하여 안중에 두고 있는 자연 종교에서 이신론의 성향을 보이는 라이프니츠의 『단자론』에서 분명하게 찾을 수 있는 위 2.2. 2.3. 2.4. 명제들을 분명하고 뚜렷하게 또는 명시적으로 읽어낼 수 없으며, 나머지 모든 명제들은 현재 논문이 보여주듯이 푸펜도르프의 자연 종교 구상에서 뚜렷하게 확인될 수 있다. 특히 이성과 계시의 보완 관계와 양립 관계를 함축하고 있는 3.1. 3.2. 4. 명제들을 고려해 볼 때, 우리는 푸펜도르프가 그의 자연 종교 구상에서 일차적으로 인간의 타고난 이성에 의탁하면서도 부수적으로 신의 계시를 인간과 신의 인식적 관계 안에서 보다 인간과 신의 실천적 관계 안에서 부정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용인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푸펜도르프가 구상하여 안중에 두고 있는 자연 종교를 그리고 그가 주장하는 (이신론에 정향한) 유신론을 종교와 도덕의 연결 관계라는 주제 안에서 가장 뚜렷하게 대변하며 특징짓는 것은 5.1.명제와 5.2.명제라고 글쓴이는 판단 한다.

글쓴이는 푸펜도르프가 주제화하는바 신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를 상호 연속하며 상호 보완하는 두 가지 갈래로 곧 술어적 경험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인식적 관심 대상이나 지식의 대상으로서의 신에 대한 의무와 선술어적 경험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실천적 관심 대상이나 신앙의 대

상으로서의 신에 대한 의무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타고난 이성과 자유 의지 그리고 신의 의지에 따라서 신을 마주하여 수행해야 할 첫째 갈래의 의무와 둘째 갈래의 의무를 우리는 일상 언어를 사용하여 각각 다음과 같은 종교적 도덕 명제로 표현할 수 있다. 인간은 이성과 앎의 대상으로서의 신의 존재와 본질에 관한 확고한 이해와 인식을 가져야 한다. 인간은 믿음과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신에 복종하고 신을 숭배해야 한다. 신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의무라는 주제에서 푸펜도르프는 한편으로 인간의 실천적 종교 활동을 강조하는 문맥 안에서는 첫째 갈래의 의무에 이차적 의미를 그리고 둘째 갈래의 의무에 일차적 의미를 부여한다. 푸펜도르프는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신에 대한 이론적 인식 관계를 중시하는 문맥 안에서는 첫째 갈래의 의무에 일차적 의미를 그리고 둘째 갈래의 의무에 이차적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 있다.

푸펜도르프는 인간의 타고난 이성과 자유 의지를 적극적으로 중시하는 자연 종교의 문맥 안에서 신앙과 신의 의지와 계시 종교를 소극적으로 용인하면서 이신론에 정향한 유신론을 펼친다. 이신론에 정향한 유신론자로 간주될 수 있는 푸펜도르프는, 스콜라주의 철학이 종교나 신에 대하여 품고 있는 상호 대조적인 중요한 철학 전통 가운데 예를 들어 안셀무스의 『프로스로기온』에서 읽어낼 수 있는 내면성의 철학 모형이나 안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 그리고 안셀무스의 『모노로기온』에서 찾을 수 있는 실재주의 철학 모형이나 밖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 가운데 전자의 길에 동의하지 않고 후자의 길에 따른다. 이러한 종교 철학적 사유의 도정에서 한편으로 푸펜도르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갈래의 철학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갈래는 아리스토텔레스와 아퀴나스가 규정하는 스콜라 철학의 실재주의 철학 모형의 영향이며, 둘째 갈래는 아퀴나스가 중시하는 것으로서 현실 세계와 현실 대상에 관계하는 언어적 표현에서 출발하는 언어의 유비적 사용의 영향이며, 셋째 갈래는 푸펜도르프의 활동 시기에 유행하는 베이컨식 외적 실재주의와 감각주의의

영향이다. 푸펜도르프는 이러한 세 가지 갈래의 철학적 영향 아래 지성 우위의 길과 밖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의 길을 간다고 평가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푸펜도르프는 스콜라 철학이 품고 있는 철학적 경향들 가운데 하나인 내면성의 철학 모형과 안으로부터의 신 존재 증명의 길에 대하여 그리고 이것이 종교와 신에 관하여 함축하는 신앙 우위의 길이나 종교 신비주의에 대하여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의 존재나 신의 인식에 관계하는 내적 체험주의나 인식 선천주의에 대하여 거리 두기와 차이 두기를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 특히 푸펜도르프의 이러한 거리 두기와 차이 두기에 착안하여 우리는 내면성의 철학 모형에 정향한 스콜라주의의 길과 실재주의 철학 모형에 정향한 푸펜도르프의 길을 다음과 같은 논제들을 사용하여 뚜렷하게 대조해 볼 수 있다. 전자의 길에 따르면, 철학은 신학을 위한 시녀이며, 지성은 신앙을 위한 시녀이며, 철학은 신과 신학을 위해서 존재한다. 후자의 길에 따르면, 신앙은 지성을 위한 시녀이며, 계시 종교나 계시 신학은 자연 종교나 자연 신학 그리고 철학을 위한 시녀이며, 인간의 실천적 삶과 행위에 그리고 종교 활동에 정향한 계시 종교나 계시 신학은 철학이나 도덕을 위하여 존재한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푸펜도르프는 다음과 같은 논제를 함축적으로 주장한다고 볼 수 있다. 신앙의 대상인 신이나 계시 종교는 도덕의 시녀이다. 또는 인간의 실천적 관심 대상인 신 그리고 계시 종교는 인간의 도덕이나 도덕적 삶을 위해서 존재한다.

푸펜도르프는 인간의 실천적 관심 대상인 신이 그리고 자연 종교의 실천적 부분으로 나타나는 계시 종교가 도덕을 위한 유용한 현실적 방편임을 주장한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경험적 사실로서의 도덕이나 도덕적 삶 곧 그가 의미하는바 인간들 사이의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적 삶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러한 현실적인 도덕적 삶의 실현에 유용하게 기여할 수 있는 경험적 사실로서의 종교적 삶을 곧 신의 숭배로서의 종교를 곧 종교 실천이나 종교 활동을 현실주의자의 시각

에 따라서 그리고 현실의 문맥 안에서 요구한다. 이점에서 칸트는 푸펜도르프와 함께 도덕을 위하여 신이나 종교를 요구하는 도덕적 신 존재 증명의 길을 그것의 형식면에서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두 사람이 각각 안중에 두고 있는 도덕적 신 존재 증명의 길의 실질적 내용을 고려할 때 칸트의 길은 푸펜도르프의 길과 다르다. 푸펜도르프의 경우와 달리 칸트가 의미하는 도덕이나 도덕적 삶은 경험적 사실이나 구체적인 사회적 삶을 가리키지 않고 선험적 이념으로서의 도덕이나 도덕성을 지칭한다. 그리고 칸트가 실천 이성에서 흘러나오는 실천적 신앙의 대상으로 요청하는 종교나 신은 현실에서 구체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경험적 사실에 또는 감각 경험을 통하여 구성할 수 있는 경험적 개념에 관계하지 않고 감각 경험을 통하여 구성할 수 없는 선험적 이념을 가리킬 뿐이다. 칸트는 푸펜도르프와 달리 관념주의자의 시각에 따라서 그리고 선험적 관념이나 이념의 문맥 안에서 도덕을 위한 신이나 종교를 요청한다.²⁶⁾

26) 선험적 이념으로서의 도덕에 관하여 그리고 이것이 요청하는 세 가지 선험적인 형이상학적 이념들 곧 (의지의) 자유, 신(의 존재), 영혼(의 불멸성)에 관하여 다음을 참조하시오. 칸트, 『아카데미 판 칸트 전집 9권』, 92-93쪽; 『바이세텔 편 칸트 전집 2권』, 60쪽; 『바이세텔 편 칸트 전집 3권』, 228, 590쪽; 『바이세텔 편 칸트 전집 5권』, 604쪽. 조 관성, 『칸트의 교육학 강의』, 철학과 현실사 2007, 51-54쪽.

참고문헌

- 조관성, 『칸트의 교육학 강의』, 철학과 현실사 2007,
_____, 「푸펜도르프의 자연법 윤리학에서 도덕적 의무 이론 -『인간의 의무』
에 관한 해석적 연구-」, 『철학 사상 문화』 제23호, 동국대 동서사상
연구소, 2017.
- Anselm von Canterbury. *Proslogion*, in: *Opera omnia, Bd.1*, (Lateinisch-Deutsch),
herausgegeben und übersetzt von F. S. Schmitt, Stuttgart 1984.
(약호: 『프로스로기온』)
- _____, *Monologion*, in: *Opera omnia, Bd.1*, (Lateinisch-Deutsch),
herausgegeben und übersetzt von F. S. Schmitt, Stuttgart 1984.
(약호: 『모노로기온』)
- Aquinas Thomas, *Summa Theologiae*, Madrid 1985. (약호: 『신학 대전』)
_____, *Summa Contra Gentiles*, Gesamtausgabe in einem Band, (Lateinisch
-Deutsch), Darmstadt 2009. (약호: 『대이교도 대전』)
- Augustinus, *Confessiones-Bekenntnisse*, (Lateinisch-Deutsch), Darmstadt 1984;
The Confessions of St. Augustine, Translated by E. B. Pusey,
London 1946. (약호: 『고백록』)
- Descartes, *Meditationes de Prima Philosophia*, (Lateinisch-Deutsch), Hamburg
1959. (약호: 『제일 철학에 관한 성찰들』)
- Eberhard Schockenhoff, *Natural Law and Human Dignity*, Mainz 1996.
- Edward Craig,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2*, London 1998.
- Fagothey, Austin, *Right and Reason*, Saint Louis 1967.
- G. W. Leibniz, *Monadologie*, (Lateinisch-Deutsch), Hamburg 1982.
(약호: 『단자론』)
- Henry B. Veatch, *For An Ontology of Morals -A Critique of Contemporary
Ethical Theory-*, Evanston 1971.

- _____, *Human Rights -Fact or Fancy?-,* London 1985.
- Irwin, Terence, *The Development of Ethics -A Historical and Critical Study-, Vol.2,* Oxford 2008.
- John Finnis, *Natural Law and Natural Rights,* Oxford 2002.
- John Tulloch, *Rational Theology and Christian Philosophy Vol. 1-2,* London 1874 (Reprint, Darmstadt 1966).
- Joseph Rickaby,S.J., *Moral Philosophy -Ethics, Deontology and Natural Law-,* London 1923.
- Kainz, Howard P, *Natural Law-An Introduction and Re-Examination-,* Illinois 2004.
- Kant, Immanuel, *Kants Gesammelte Schriften,* Berlin 1974.
(약호: 『학술원 판 칸트 전집 1~29권』)
- _____, *Kant Werke in Sechs Bänden,* Darmstadt 1966.
(약호: 『바이세텔 편 칸트 전집 1~6권』)
- _____, *Kritik der Praktischen Vernunft,* Hamburg 1974.
(약호: 『실천이성비판』)
- Paul Edwards, *The Encyclopedia of Philosophy Vol. 2,* London 1967.
- Peter A. Angeles, *The Harper Collins Dictionary of Philosophy,* New York 1992.
- Pufendorf, Samuel, *On the Duty of Man and Citizen According to Natural Law,* Edited by James Tully and Translated by Michael Silverthorn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약호: 『인간의 의무 A』)
- _____, *The Whole Duty of Man According to the Law of Nature,* Edited and with an Introduction by Ian Hunter and David Saunders, Indianapolis 2003. (약호: 『인간의 의무 B』)
- Rommen, Heinrich A., *The Natural Law -A Study in Legal and Social History and Philosophy-,* Indianapolis 1998.

푸펜도르프가 구상하는 자연 종교에서 신, 인간의 신에 대한 의무, 종교와 도덕 / 조관성

Schneewind, J. B., *The Invention of Autonomy -A History of Modern Moral Philosoph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God, God-Directed Human Duties, Religion and Morality in Pufendorfs Conception of Natural Religion

- An Interpretative Study of his *On the Duty of Man
and Citizen According to Natural Law* -

Cho, KwanSung (Gyeongin Nat'l Univ. of Education)

This article purports to make an interpretative study of the first book of Pufendorfs *On the Duty of Man and Citizen According to Natural Law*. It has the following two purposes. On the one hand it aims to provide an elucidating full account of what Pufendorf understands under the main themes of natural religion and man's moral duties toward God. For this purpose it deals with such sub-themes as God's existence and essence, reason and faith, knowledge and revelation, the argument for the existence of God from the outside in contrast with that from the inside, the analogical use of religious language, deism-oriented theism in distinction from atheism, moral argument for the existence of God, religion for morality.

On the other hand taking the context of the history of religious philosophy and moral philosophy into consideration the author intends to make clear Pufendorfs philosophical place and significance in it. For this purpose he attempts to carry out an excavating inquiry so that he may bring out the dual histories of both reception and influence that can be said to lie implicit and hidden in Pufendorfs conception of natural religion not only by focusing on Pufendorf but also by comparing Pufendorf (even if in an oversimplified way) with such philosophers as Aristotle, Augustinus, Anselm, Aquinas, Descartes,

푸펜도르프가 구상하는 자연 종교에서 신, 인간의 신에 대한 의무, 종교와 도덕 / 조관성

Leibniz, and Kant with either identification or distinction in view.

Key words: Natural Law, God, Natural Religion and Revealed Religion, Deism-Oriented Theism, Man's Moral Duties Toward God, Religion and Morality.

조관성 E-mail: chosohag1206@naver.com

투 고 일	2017년 01월 15일
심 사 일	2017년 01월 26일
게재확정	2017년 02월 12일